

나주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 본격화

산업부·한전·3개 혁신도시, 시민연대와 협약 절약 실천 공동주택에 현금 등 인센티브 지급

나주시가 적게 쓴 에너지 양 만큼 현금을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5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세종·진천 등 3개 혁신도시 시·군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에너지 캐시백'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공동주택(아파트) 부문 에너지 절약 실천 인센티브 제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공동주택별 전기(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절감한 전기 사용량만큼 현금 등으로 환급해주는 것이 사업의 주 골자다.

산업부, 나주시 등 3개 시·군 지자체, 한전, 에너지시민연대는 이날 협약을 통해 ▲공동주택 전력 절감량 정보 제공에 따른 캐시백 지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입촉진 및 홍보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발굴·시행 ▲에너지 절약 교육,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추진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각 공동주택 단지가

전체 참여단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수치의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량에 해당하는 구간별로 2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캐시백을 지급받게 된다.

단지 내 각 세대도 개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체 참여세대의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수치를 절감한 경우 절감량에 대해 1kWh 당 30원의 캐시백이 지급된다.

에너지캐시백 시범사업 가입·신청 대상은 나주시를 비롯한 3개 혁신도시 내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 개별 세대다. 신청은 2월 28일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하면 된다.

가입이 완료된 공동주택 및 개별세대는

2~5월까지의 에너지 절감 실적을 측정해 6월 중 캐시백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지름길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있다"며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서 정부와 지자체, 한전, 시민연대와 연대협력을 통해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더불어 에너지 절약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을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나주시가 적게 쓴 에너지 양 만큼 현금을 돌려받는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나주·세종·진천 등 3개 혁신도시 시·군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시민연대와 '에너지 캐시백 시범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나주시 제공



영광군은 최근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영광군 제공

정보공유 문제해결 능력 향상 제고

영광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협의회

영광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임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개별농업인의 취약한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정보의 공유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협의회에는 관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회장 및 총무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협의회를 주최한 영광군농업기술센터는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의 조직화, 생산 및 가공, 경영 마케팅 학습활동 촉진 등

2022년 연구회 활동지원을 위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고자 연구회별 기본계획,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영광군에서는 고추, 딸기, 대파, 사인머스켓, 복숭아 등 16개 품목별농업인연구회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총 433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품목별 역량향상을 위한 현장컨설팅, 신기술 습득을 위한 정기회의를 통한 정보공유 등 활발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광=곽용순 기자

장흥, '슬로시티' 공직자 역량교육

재가입 추진... "현지실사만 남겨둔 상태"

장흥군은 지난 24일 '슬로시티의 올바른 이해와 국내·외 사례'라는 주제로 온라인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슬로시티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추진한 이번 교육은 (사)한국슬로시티본부 사무총장인 신라대학교 장희정 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장희정 교수는 공직자가 업무 추진 시 필요한 슬로시티 이념, 국내외 사례 및 슬로시티 장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장흥군은 2013년에 지정 해제된 국제슬로시티에 재가입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재가입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국제슬로시티본부의 현지 실사만 남겨둔 단계다.

당초 국제슬로시티본부의 현지 실사는 실사단이 장흥군을 방문할 계획

이었으나,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오는 2월 22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흥군은 친환경 농지면적을 40%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표고버섯, 무산김, 매생이 등 친환경 특산품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문학관광기행특구로 인문학적 가치가 높고, 슬로시티의 조건인 '풍부한 생태자본', '풍부한 사회적 자본', '균형과 조화' 등의 요건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국제슬로시티에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먼저 슬로시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하기에 교육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있을 온라인 국제실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장흥군이 국제슬로시티에 재

가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담양, 2025년 행복주택 94가구 공급

전용면적 50㎡ 이하

담양군과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2025년에 담양군 담양읍 삼관리에 행복주택 94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담양군과 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으로 '담양산만 행복주택 건설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담양군은 사업 관련 인허

가 및 재정지원 등을, LH는 설계·사업 승인 및 시공 등 건설 관련 업무 총괄과 기간 내 행복주택 관리·운영 등 업무 부담을 맡는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50㎡ 이하로, 담

양군과 LH는 행복주택 전용면적 구제적 규모를 설계할 때 반영하기로 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행복주택 부지 인근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나주시 '2차 재난지원금' 내달 지급...1인 1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는 나주시가 모든 시민에게 제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나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2월에 이어 전체 시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설 연휴 이후부터 2월말까지 나주시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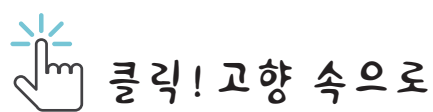
지원 대상과 규모는 총 11만6,726명에 자체예산 11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

상된다. 지원금은 지급 결정을 한 24일을 기준으로 나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시민과 결혼이민자에게 지급한다.

나주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우선 사용하고 2회 추경 시 재정수요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부족 재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

침이다.

나주시는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지역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시민생활 또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 어려움이 가중되더라도 감염병 사태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주=이재순 기자



장흥 장평면, 홀몸 어르신에 사랑의 떡국

장흥군 장평면 주민 김규열씨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떡국떡 600kg을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는 "코로나19로 가족들이 모이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기지만 떡국 한 그릇이라도 나누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했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행복한 설명절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군 장평면사무소에서는 전달받

은 떡국떡을 관내 독거노인 300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안병진 장평면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해주신 김규열 초대회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잘 전달해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담양, 제3기 주민자치회 275명 위촉

담양군은 '담양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발, 275명을 위촉하고 제3기 담양군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첫발을 내딛었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읍면 주민자치회 회장을 대표로 위촉식을 진행했으며, 2022년부터 임기 2년을 새롭게 이끌어갈 회장, 사무국장 등 제3기 주민자치연합회

임원을 선출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 마을자치회 지원, 정책사업 제안 및 건의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자치연합회 정종갑 회장은 "재정비된 제3기 담양군 주민자치회의 활발한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



함평, 스마트폰 활용 정보화교육

함평군 농업기술센터가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내달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환경에서 군민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정보화 교육장에서 컴퓨터 및 스마트폰 활용

기초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기간은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1일 3시간씩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상반기 모집인원은 총 20명이다. 다만, 코로나19 특별 방역대책 일환인 방역 패스 의무 착용에 따라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강이 가능하다. /함평=윤예중 기자